

성적소수자를 위하여 - 무지개 2002

이태원에 뜬 화려한 무지개



무지개 2002는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한국의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양성애자 축제이다.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게 세상은 편견의 눈길을 보내지만 이제 그들을 위한 축제를 열 수 있을 만큼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그들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될 그 날을 기다린다.



박종운 본회 교육팀

이번 무지개 2002는 6월 4일에서 11일까지 광화문 일주아트하우스 내 "아트큐브"에서 쿼어 영화를 비롯해 광화문 갤러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더글라스 샌더스 교수의 초청 인권 강연회를 열었다. 더글라스 교수는 1964년 캐나다 최초의 게이, 레즈비언 인권협회인 사회 지식 (Association for Social Knowledge)의 창립 멤버이다.

또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6월 8일 오후 이태원에서는 1000여명 가까이 모여 홍석천씨가 사회를 보고 풍물패공연,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원씨 공연, 개막선언 등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가장행렬퍼레이드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등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후에는 밤샘 댄스파티로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퍼레이드 취재들 가면서 낯설지는 않을까 걱정과 기대와 설렘이 앞섰으나 그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써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는 여러 사람에게 이 행사가 뭐냐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지 않았으나 여려모로 놀려있던 참석자들의 발산된 기 때문인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색깔이 있었다. 특히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경쾌한 음악과 현란한 댄스를 선보인 친구사이 스포츠댄스 팀과 풍물팀은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이들로 행렬에 동참하게 하는 흥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퍼레이드의 의의는 "동성애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것 그것이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관객들에게는 즐거우면서도 평소에 낯설고 멀게만 느끼던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 퍼레이드를 위해 준비 중인 차량들.

▼ 퍼레이드 선두에 현수막과 관람객의 흥을 돋구는 풍물패.



무지개 2002



경쾌한 음악에 맞춰 격렬한댄스를 선보인 친구사이 스포츠댄스팀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혐오하는 편이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자 퍼레이드는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한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며, 당당히 자신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런 차별과 억압이 부당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조직위원장인 한채운씨는 말했다. 특히 그녀는 주위의 억압에 자기조차도 자신을 부인하던 이들이 용기를 내어 먼저 스스로에게 커밍아웃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현재 이러한 동성애자 축제는 각국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게이 앤 레즈비언 마디그라’는 매년 2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3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펼쳐지며, 이 외 주요 동성애자 축제(미국과 유럽)는 주로 스톤월 항쟁(미국에는 스톤월(Stonewall)이라는 게이 바가 있었는데, 1969년 6월 경찰이 스톤월을 습격하여 몇몇의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동성애자들은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3일 동안 경찰과 전면으로 대치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게 되었다.)을 기념하기 위해 6월 27일 전후에 있다. 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대규모의 동성애자 축제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위 행사들도 초기에는 소규모였고 참석자들이 유혈의 비극까지 맞보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으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의 파워는 증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지개 2002에서 동성애자 행사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기금인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억압과 편견의 대상이던 이들의 존재가 전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밑거름을 든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이번 행사에 Positive Lives 감염인 사진 전시와 후원함으로써 참여했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無知)와 차별이 해소되는 동시에 ‘동성애는 AIDS다’라는 편견도 같이 없어지길 바란다. 또한 AIDS 감염인들도 이러한 조직적인 연대와 움직임으로 소외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써 권리를 찾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날이 하루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가자들에게는 자긍심을, 관람객들에게는 즐거우면서도 평화가 넘치고 멀게만 느끼던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장 가까이도록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